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역대 7번째... 불법상속 의혹 등 내년 1월초 본격 수사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은 ‘삼성 그룹의 모든 의혹’을 조사하는 데다 국내 대표 재벌인 삼성과 권력층 간의 부패 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 ▲불법보좌관과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비자금이 2002년 대선 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과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 진상을 규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이 발효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하며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대선이 끝난 후인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역대 7번째 특검인 ‘삼성 비자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우선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 수권부사채(BW) 할당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고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여기에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지시 주체, 조성 방법과

규모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포괄적 뇌물제공 의혹도 포함됐다.

이밖에 ▲삼성그룹이 비자금 노출을 막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이들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포함됐다.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 변협의 3인 추천(7일), 대통령의 임명(3일) 등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별검사는 임명장을 받으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갖게 되며 3인의 특별검사보와 3인의 과검사를, 40인 이내 특별수사관, 50인의 과검 공무원을 확보하게 된다.

특검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10일께는 본격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지만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 최장 105일의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법원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檢 “삼성 차명계좌 120개 추적중”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4일 압수수색과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등을 통해 확인한 120여개 차명계좌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단서를 확보한 일부 차명계좌에 대해 오늘부터 계좌추적을 실시할 생각이다. 또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차명계좌 4개와 그와 관련해 추가로 의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계좌 등 20여개를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수사 방향과 관련, “현 상황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있지 않겠나. 자금 추적은 이번 수사의 기초공사가니 만큼 최대한 탄탄하게 해야 한

다”며 “우선 압수수색 분석과 관련 계좌추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슨 의심 계좌가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이 비자금 계좌라고 단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주인’을 부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 이후에는 실제 명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작업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가 처음 ‘차명 계좌’ 의혹을 제기한 차명계좌 4개에 대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이며,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월요일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차명 의심 계좌의 수사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권부총리 “해주·안변·남포·백두산 경협 논의”

남북 경협공동위 개막

‘2007 남북정상선언’ 중 경제협력 분야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협공동위)가 4일 오후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개막했다.

권오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전승훈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경협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서로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권 부총리는 전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남북이 좀 더 목표와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총리회담에서 3통문제, 화물열차 운송에 합의했으므로 앞으로 공동위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회의의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해주, 안변, 남포, 백두산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내각부총리는 “북남수뇌들 간 역사적인 평양선언인 ‘10.4선언’이 나오면서 북과 남 사이에 경제협력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좋은 용마는 잘타면 천리마가 되고 못타면 하늘소(북측말로 ‘당나귀’라는 뜻)가 된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간다면 북남경제협력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차관급이 맡아왔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이 위원장인 경협공동위로 격상돼 열리는 첫 회의다. 북한 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한 것은 지난 92년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美 대선 초반 이상기류...대세론 흔들

힐러리·줄리아니 고전...오바마·허커비 급부상

향후 미국 대선 판세를 가늠할 1,3 아이오와 코카스(당원대회)를 한달 앞두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루돌프 줄리아니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초반에 고전하는 등 대선구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세론을 구가해온 이들 양당 주자가 주춤해진 사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새로운 바사정을 가장 정확히 대변하는 유력인론과 여론조사기구들은 3일 밝혔다.

선거전문가들은 “힐러리와 줄리아니가 비록 전국 지지도에선 아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바마와 허커비가 맹추격하는 추세”라며 “토크 쇼에서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내주 오바마 지원유세에 나서고, 허커비에 대한 보수층의 이동현상이 본격화되면 대세론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아이오와주 사정을 가장 정확히 대변하는 유력인론과 여론조사기구들은 3일 밝혔다.

28일 주내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힐러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일리노이주 출신인 오바마는 지난 10월 지지도가 22%에 불과, 29%의 힐러리 의원에게 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8%의 지지율을 획득, 25%를 얻는데 그친 힐러리 의원을 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존 에드워드 전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3%를 기록, 3위를 유지했다.

공화당에서도 뚜렷한 지지도 변화가 나타났다. 레지스터 여론조사에서 허커비는 29%의 지지도를 그간 수위를 달렸던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청말 ‘비운의 황제’ 광서제는 독살 당했다”

청나라 말기 ‘비운의 황제’ 광서제(光緒帝)의 죽음을 둘러싼 100년간의 의혹이 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콩 시사잡지 자형(紫荊) 최신호는 중국의 국가중점문화프로젝트가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 광서제의 유체를 대상으로 화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머리 유골에서 치명적인 비소 성분을 발견했다고 4일 보도했다. 광서제 두개골의 비소 함유량은 정상 수준의 1천~2천배를 넘었고 두개골의 특정 부위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이는 광서제가 의도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 유독성 화학물로 질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 광서제 유해의 위 부위에서도 미세한 독극물 성분이 발견된다면 광서제가 독살됐다는 단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광서제는 1898년 강유위(康有爲)와 함께 입헌군주제 개혁운동인 ‘무술변법(戊戌變法)’을 주도하다 당시 실권자였던 서태후(西太后)에 의해 유배돼 1908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았다. /연합뉴스

“섹스 자주 하면 머리 좋아진다”

섹스를 자주 하고 다크 초콜릿을 즐겨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테리 혼과 시몬 우튼은 공동저서 ‘스스로 뇌 훈련’에서 두뇌 능력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가 쇠퇴한다는 통념을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섹스를 하면 체내에 옥시토신,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 책은 주장했다. 또 다크 초콜릿과 찬 고기를 먹는 북유럽식 아침 식사도 머리가 좋아지는 비결로 꼽혔다. /연합뉴스



국회·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FTX)에서 참가 직원들이 폭발차량을 진화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김태량 국회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은 국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에 대비해 국회,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첫 모의훈련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겨울방학 불리인 영어캠프' (Winter Vacation Unfavorable English Camp).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ar and lists various benefits and activities. Text includes 'www.wintercamp.com', '겨울방학 불리인 영어캠프', and '영어캠프'.

Advertisement for '당학생선생' (My Student Teacher).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graduates in caps and gowns. Text includes '당학생선생', '비밀로 여긴 지혜의 공부비서', and '당학생선생'.